유적지 순례 106

昌和公 諱 準과 子孫

창화공 휘 준과 자손

△창화권 준 묘소 :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산 112번지(묘비 입석 후).

△창화권 준 묘소 : (묘비 입석 전).

△문화재청에서 출토한 묘지석.

△창화권 벽화묘, 북벽 인물상과 선신도.

△벽화묘(좌. 서벽 인물상, 우. 동벽인물상).

△엽전과 도자기 파편.

창화공의 호는 송재(松齋)이며 고려 충렬왕 7년(1281)에 출생하여 18세에 대전행수(大殿行首)가 되고 진사에 급제하였다.

공은 여러 관직을 거쳐 검교첨의정승(檢校僉議政丞)에 대우문감춘추관사 상호군 삼한벽상공신(大右文監春秋館事 上護軍 三韓壁上功臣)에 올랐으며 품계가 올라 삼중대광 길창부원군(三重大匡 吉昌府院君)이 되었다. 공은 추밀공의 현손이며 부친은 문정공(文正公) 휘 보(簿)이며 호는 국재(菊齋), 조부는 문청공(文淸公) 휘 단(日旦)이고 호는 몽암(夢庵)이다.

원나라 성종말기에 공은 원경(元京)에 가서 왕자시절 충선왕을 만나고 충렬왕 34년 충선왕이 환국하여 즉위시 대언(代言)에 발탁되고 충선왕 3년 합포만호에 제수되었다. 충선왕 5년 왕이 충숙왕에게 전위하고 원나라 조정과의 사사(使事)를 공에게 명하니 공은 원에 자주 왕래하였다.

충숙왕 8년 왕이 원에 불려가 억류되니 조정은 불경한 무리들의 모함을 배제하여 사태가 진정되자 공을 찬성사(贊成事)에 배하고 한림학사(翰林學士)와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를 지낸 학문으로 지공거(知貢擧)가 되어 과시를 주관하며 문생(門生)을 길렀다.

충혜왕이 습위하자 정승 조적(曺頔) 등이 난을 일으켰다. 조적이 패하고 왕이 복위하자 공은 부원군(府院君)에 올랐다. 충혜왕이 승하하자 원(元)에 볼모로 가 있던 원자 흔(昕)이 즉위하니 8세의 충목왕이었다.

충목왕 4년 충정왕이 즉위했으나 왜구의 침입으로 나라가 흉흉하여 강능대군을 즉위시키니 공민왕이다.

공에 대한 충선왕의 은전이 깊어 하사받은 것이 많았으며 또 충선왕은 공의 어린 넷째 아우 재(載)를 양자로 삼으니 정헌공 왕후(王煦)이다.

충숙왕의 총애도 남달라 한천(寒泉)의 안향(安珦)의 구택을 매입해 공에게 하사하여 부친(菊齋公)을 효양케 하니 한천의 사원이 강학(講學)처가 되고 공은 문하생(門下生)을 많이 배출하였다.

공은 효행이 지극하여 1326년 문인들과 부친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계원록(桂苑錄)을 만들고 1342년 부친 국재공을 도와 효행록(孝行錄)을 편수하였다. 공의 사적은 국재공과 함께 고려사(高麗史)에 입전(立傳)되고 고려 명신전(名臣傳)에 올랐으며 동국여지승람의 안동부편 인물조에 올랐다.

공은 남에게 베풀기를 널리하며 불문(佛門)에 시주하면서 30여년 동안 10여명의 승려를 봉양하면서 자효사(慈孝寺)와 인연이 깊었다.

공은 공민왕 1년(1352년)에 질환이 깊어 향년 72세로 졸하였다. 왕이 진도(震悼)하여 조회를 거두고 공에게 창화(昌和)의 시호(諡號)를 내렸다. 자효사 서쪽 언덕(장단군 진동면 서곡리산112)에 장사하였다.

공의 묘소는 묘실에 벽화가 그려졌는데 훗날 봉사손이 화를 당해 외손 청주 한씨가 수호하게 되고 오랜 기간 실전되었다.

부인은 보성 오씨 (寶城吳氏)밀직사사 인영(仁永)의 딸이며 장자는 형(衡), 차자는 적(適)이고 사위는 남양인 홍탁(洪鐸)과 홍언박(洪彦博)이다.

장자 현복군(玄福君) 형(衡)

장자 현복군(玄福君)은 초휘가 염(廉)이고 충열왕 28년 개성에서 출생하였다. 충선왕 3년에 함경전녹사가 되고 충숙왕 2년 14세로 보마행수(寶馬行首)에 선발되었다. 충숙왕 4년 16세로 원(元)에 들어가 봉상대부 삼사부사(三司副使)가 되었다.

충숙왕 10년 천자(天子)를 도왔으며 충숙왕 12년 원제(元帝)로부터 선무장군(宣武將軍) 합포진변만호(合浦鎭邊萬戶)를 받았다. 충숙왕 14년 26세로 환국하여 군역(軍役) 수전(授田)을 적절히 하여 민심을 얻었다.

29세에 장순대부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가 되고 축숙왕 복위 4년 장녀가 왕의 수비(壽妃)가 되니 현복군(玄福君)에 책봉되었다. 충숙왕 7년 광정대부(匡靖大夫)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에 올랐다.

공은 충혜왕 1년 병으로 졸하니 39세였다. 숙부 정헌공이 "권씨의 자제로 만호(萬戶)보다 어진 자가 없는지라 내 일찌기 비호(庇護)하기로 하였는데 하늘이 어찌 어린 자제를 빼앗음이 극심하랴"하였다. 목은 이색(李穡)이 묘지문을 지었다. 묘소는 개풍의 태평원에 있다.

아들은 현성군 용(鏞), 도첨의찬성사 현(鉉), 양효공 호(鎬), 화산군 균(鈞), 규헌공 주(鑄) 와 6녀를 두었다.

손(孫) 현성군(玄城君) 용(鏞)

현성군은 목은(牧隱)이 지은 묘지문에 공은 중대광(重大匡) 현성군(玄城君)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공이 쓴 창화공(昌和公)의 벽화묘(壁畫墓)에서 발굴한 묘지(墓誌)에 중대광 보문각제학(寶門閣提學) 현성군으로 자서하였는데 공은 해서(楷書)와 전서(篆書)에 능할 정도로 명필이었다. 그러나 아들 진(瑨)이 공민왕 21년 설치한 자제위(子弟衛)에 선임되어 임금의 총애를 받고 궁중을 숙위(宿衛)하다가 공민왕 23년 왕이 시해되는 사건에 연좌되어 처자와 함께 참화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부친 용(鏞)은 원주로 유배되고 우왕이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되었다. 후사는 현성군 정주(定柱), 진(瑨), 연(演)과 5녀를 두었는데 연(演)도 진과 함께 화를 입었다.

손(孫) 현(鉉)도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이며 다른 기록은 없다.

손(孫) 양효공(良孝공) 호(鎬)는 익대공신에 녹훈되고 판후덕부사에 이르렀다. 호는 정재(靜齋)이고 사후에 양효(良孝)의 시호를 받았다. 아들 괴정공(槐亭公) 담(湛)은 우왕 6년 문과 급제하고 태종 5년 경기도 관찰사(觀察使)로서 춘궁기 전에 금주령을 내렸다. 세종 1년 황해도 관찰사가 되고 세종 3년 자헌대부(資憲大夫) 전주부윤(全州府尹)이 되었으며 세종 5년에 졸하였다. 문집을 남겼으나 실전되었다. 묘소는 용인의 대대리에 있다.

손(孫) 화산군(花山君) 균(鈞)은 공민왕 19년 공부상서(工部尙書)로 명나라에 다녀와 조선 개국 후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화산군(花山君)에 봉해졌다. 아들은 홍(弘)이며 시호는 문순(文順)이다.

손(孫) 규헌공(葵軒公) 주(鑄)는 우왕 9년 여주 신륵사 장경각(藏經閣)에 글씨를 썼는데 봉익대부 판전교시사 진현관(進賢冠) 제학(提學)으로 자서하였다. 조선조에 도평의사사(都評議司事)가 되었으며 태조 3년 졸하였는데 직은 밀직제학(密直提學)이다. 졸기에 성품이 바르고 성실하였으며 충주와 황주목사가 되어 혜정(惠政)을 베풀었으며 내직으로 지신사(知申事) 시에 성균관 시관(試官)을 하였다. 묘소는 경기 풍덕군 망포의 냉정동에 있다.

아들은 사간공(司諫公) 훈(壎), 증(增), 보(土保)를 두었다.

손녀(孫女) 수비(壽妃)

충숙왕 복위 4년 입궐(入闕)하여 충숙왕(忠肅王)의 후(后) 수비(壽妃)가 되었으며 상세 기록은 없다.

차자 원정공(原靖公) 적(適)

호는 계정(繼亭)이다. 충혜왕이 원나라로 가 방탕함을 계속하자 총신(寵臣)인 공이 파직 유배되었다가 충숙왕이 승하하자 공이 충혜왕 옹립에 공을 세웠으며 왕이 원의 형부에 구속되자 성절사(聖節使)의 부사(副使)가 되어 요로에 힘써 왕을 석방시켜 즉위케 하였다. 그 공로로 첨의부(僉議府) 참리(參里)에서 찬성사(贊成事)가 되고 화산군(花山君)에 책봉되었다.

공민왕 10년 홍건적이 침구해 서경이 함락되자 공은 승병을 거느리고 나가 적을 물리치므로 단성보절공신(端誠保節功臣)에 녹훈되고 삼중대광(三重大匡)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에 진봉되었으며 공민왕 14년 첨의평리(僉議評理)가 되었다. 졸후 원정(原靖)의 시호가 내렸다. 묘소는 경기도 장단의 능동에 있다.

아들은 현(顯)이다.

벽화묘(壁畫墓)의 발굴과 묘지명(墓誌銘)

청주 한씨로부터 문중묘 안에 벽화채석이 보인다고 중앙박물관 정양모 실장에게 신고되어 1991. 1. 14 현지답사하고 문화재관리국은 3월 청주 한씨의 허락을 득하여 파주군 진동면 서곡리 산 112번지의 분묘의 발굴조사에 들어갔다.

분묘는 남북으로 2기이며 아래 묘의 발굴에 들어가니 앞에 문비석(門扉石)이 있고 석실내부는 285x118x128cm로써 사방 벽면에 인물상(人物像)을 배치하고 천정에 성신도(星辰圖)가 있었다.

인물상의 정부(頂部)에는 동물의 12간지가 그려져 있다. 북벽(北壁) 중앙에 정좌상의 인물이 묘의 주인공으로 추정되고 동서 양쪽벽에 각 5명의 인물(人物)이 홀(笏)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성신도는 북두칠성과 삼태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출토된 유물은 토기 및 자기편과 동전 43점 및 관못 등이며 동전은 13종으로 개원통보(開元通寶) 등 중국 당(唐) 고조(高祖) 때부터 송(宋)나라 휘종(徽宗) 대까지의 화폐였다.

그런데 묘의 주인을 찾는데 중요한 단서인 광중에서 묘지석(墓誌石)이 발견되었다. 지석은 4조각으로 분리된 채 출토되었는데 크기는 가로 54.3cm, 세로 100.2cm 두께 3.7cm로서 석질은 청석계로서 지석의 앞면에 각자(刻字)가 있는데 '증시창화권공묘명(贈諡昌和權公墓銘)'이라 제액이 횡으로 써 있었다. 바로 국재공(菊齋公)의 장자인 삼한벽상공신 삼중대광(三韓壁上功臣三重大匡) 길창부원군 권준(吉昌府院君 權準)의 묘인 것이다. 묘지명을 지은 이는 창화공의 문인(門人) 대제학(大提學) 이인복(李仁復)이고 글은 손자 현성군(玄城君) 용(鏞)이 썼으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묘지명 내용에는 창화공의 증조부터 손까지 가계보가 써 있고 장지는 자효사의 서편 언덕으로 공의 장사는 32일 만에 치루어 졌다.

분묘의 외부환경은 문인상 1점과 동물상 석등이 있고 묘전에 '문열공한상질지묘(文烈公韓尙質之墓)'라 쓴 묘비가 있어 600년간 한씨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찌되었건 창화공종중은 덕분에 실전된 창화공 묘를 찾게 되고 청주 한씨와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창화공 묘로 판결을 받았다. 청주 한씨는 또 고고학적 측면에서 소를 제기한바 있다. 이 벽화묘는 여러 가지 증거와 당대 창화공 작위로 보나 묘지석으로 보아 창화공 준(昌和公 準)의 묘임이 분명하다. 창화공 종중은 2007. 3. 28일 묘 앞에 묘갈비(墓碣碑)를 수갈(竪碣)하고 고유제(告由祭)를 올렸다.

이처럼 창화공 묘를 청주 한씨가 문열공한상질공의 묘로 오인하여 600년 동안 수호한 이유가 있다.

창화공 권준의 둘째 아들인 원정공 권적의 사위가 한상질의 부친 한수(韓脩)이며 한수의 차남 상질의 손자 영의정 명회(明澮)의 딸들은 예종의 비 장순왕후(章順王后)와 성종의 비 공혜왕후(恭惠王后)가 되었다.

고려말기 공민왕은 노국공주가 죽고 남색(男色)에 빠져 총신 김흥경을 사랑하게 되고 김흥경을 통해 귀족미남으로 자제위(子弟衛)가 설치되었는데 공민왕은 자제위 홍륜 등을 익비와 성행위토록하면서 엿보았다. 그런데 익비가 홍륜의 아이를 잉태하자 공민왕이 홍륜을 죽이려 하자 홍륜은 공민왕을 시해하였다.

창화공의 손 용(鏞)의 아들인 진(瑨)이 자제위에 선발되어 근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진(瑨)이 화를 입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서 창화공 손들은 뿔뿔이 흩어져 창화공의 묘제를 외손간인 청주 한씨 집안에서 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창화공 제사를 지내주던 청주 한씨는 세월이 흘러 당대 명문가였으므로 대제학 한상질 묘로 오인하고 1700년대에는 묘 앞에 비석을 세웠다. 청주 한씨는 또 창화공 묘정에 한상질의 신도비까지 세워 현재까지 세워져 있다.

〈감수 : 창화공회장 권병선 편집 : 죽당 권경석〉

△창화공 묘지명.

△발굴전 창화공 묘소, 우측 신도비는 한상질의 묘비.

△창화공 종회는 2007년 3월28일 창화공 묘비를 입석하고 고유제를 올렸다.